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우요~

자유학기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나’는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함합니다.

- 학생**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성과 소질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노력의 과정을,
- 교원** 조금 더 좋은 수업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연구하는 과정을,
- 학부모** 학교를 믿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유학기 운영방법은?

자유학기제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고
- 오후에는** 주로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 **꿈끼** (www.ggoomggi.go.kr)
자유학기제의 정책 소개나 관련 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 ▶ **꿈트리** (dreamtree.or.kr)
명사인터뷰, 자기주도진로 등 진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월간)입니다.



‘톺아보다’란?
‘살살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우리말입니다.

자유학기 학부모용 안내서

자유학기,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부모는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최신 가전제품을 혼수로 미리 사두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에는 가격은 더 저렴하고 기능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 사둔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며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해내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남다른 상상력과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자라야 합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찾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학자들조차 5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2030년대는 어떠한 세상으로 변화해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에 마주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없겠지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많이 해결해보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Q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면 시험은 봐야하는데 괜찮을까요?

A 이제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보다 남들이 접근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아이디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익숙한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연습의 시간보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는 사색의 시간이 더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한 것 이겠지요? 이제는 학력이 아니라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 남과 다른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까요?

A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배우기 위한 실패’를 경험하며 느리지만 조금씩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이겨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신다면 아이들의 성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공감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세상은 우리들이 지내온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아이에게 모든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 아이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함께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 이런 게 궁금해요!



Q 배우는 내용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 시간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을 학습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집중합니다.

지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에는 교과를 재구성하여 단순 암기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축소시키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교과 간 융합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주변 지식은 스스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죠?

Q 수업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A 교과시간에는 교과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을 배우고, 자유학기 활동 시간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기릅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사용할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발표도 하며, 다른 친구들 발표하는 것도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점도 찾아봅니다. 예전처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는 않으므로, 자유학기는 '노는 학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유학기는 오히려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소중한 내 아이, 이렇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신 있게 보여주되 남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이
나를 존중하되 함께 살아감의 가치도 아는 아이
새로움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아이
알고 있는 것, 주변의 것을 활용하여 새로움을 만드는 아이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삶을 만들어가는 아이

내 아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로 키우기 위한 변화,
자유학기 수업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더 크게 키워주고 더 행복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점수와 서열이 중시되는 시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종이로 만든 시험지, 하나의 정답을 고르고 모든 것을 점수로 나타내는 시험, 한번의 기회로 평가되는 시험, 이런 시험으로는 더이상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결과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
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가는 수업!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인정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어떤 학생은 이미 기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학기는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향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매 수업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한발씩 나아갑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며 진짜 배움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느라 소란스러운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협력하며 진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핍니다. 학습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통 및 협력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21세기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배우고 더 넓게 생각하게 해 줍니다

수업을 함께하는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업의 주인으로 성장합니다. 공부란 평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부가 재미있어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꼭 시험 보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 A중학교 학생의 수업후기 -

[자유학기 활동 운영사례] 교과연계 주제선택 활동 - □□ 중학교의 영어과 주제선택활동

영어독서를 자유학기에 맞게 특화시킨 활동인 'Extensive Reading and Visual Storytelling' 이라는 주제선택 활동을 영어교과수업, 진로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맞물려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한 학기의 이벤트성 체험이 아닌 '질적, 양적 지속적 성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유학기 중 Extensive Reading and Visual Storytelling과 학교활동의 융합

 영어 교과수업	Lesson 7 ➤ 과학박람회에 관한 영어지문 읽고, 과학실험설명 및 시연을 Visual Storytelling(연극)으로 구성 및 공연
	Lesson 9 ➤ 장애를 극복한 인물에 대한 영어지문 읽고, 그 외 장애를 극복한 사례를 찾아 Visual Storytelling (PPT나 영상)으로 발표
 자유학기 동아리활동	영어단어 심화연구반 ➤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어단어를 활용한 Acrostic Poem을 써서, Visual Storytelling으로 전시
 진로 탐색활동	꿈명함 만들기 ➤ 진로 관련 독서전략과 영어독서전략의 융합, Visual Storytelling으로 꿈명함 제작하기

〈Extensive Reading and Visual Storytelling과 영어교과수업과의 융합사례〉

자유학기 기간 중 영어교과 수업과의 융합은, 교과서 각 단원의 'Read'에 대한 심화 활동을 Visual Storytelling 으로 구성하여 구현합니다.

교과서 Lesson. 7 Science! It's Cool

7과는 과학박람회에서 실험 부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쉬운 과학실험을 활용하여 과학박람회 장면을 영어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제를 모둠별로 부여하였다. 더불어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실험내용을 미리 포스터로 만들어 연극의 뒷배경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연극도 포스터도 모두 Visual Storytelling의 한 형태이기에, 'Extensive Reading and Visual Storytelling' 수강 학생들은 각 모둠에 소속되어, 자신이 배운 내용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하였다. 1학년 전체 학생의 1/3이 'Extensive Reading and Visual Storytelling'을 수강하기에, 거의 모든 모둠에서 수강학생이 활약할 수 있었다.

스스로 찾고 해결해가는 다양한 활동!

직접 체험하고,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교과 또는 범교과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유학기 활동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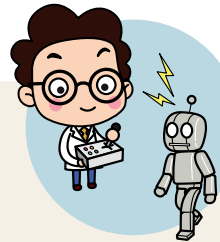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열린 토론을 하는 수업은 마치 거대한 블록쌓기처럼 진지하고 순수한 몰입을 느끼게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1학기(자유학년은 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학교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4가지 영역-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을 배정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활동을 여러 분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 사례

자유중학교 1학년 김자유 학생은 수학과 컴퓨터에 흥미가 많고 장래희망은 로봇기술자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선택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고민해서 1기에서는 '통계수업'을, 2기에서는 '스마트폰 앱 제작'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제작반에 학생들이 너무 몰려 고민이 되었지만 학교에서 1, 2기로 나누어 같은 반을 개설해 주어 2기에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 제작과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로봇 메이킹' 동아리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타를 1년 동안 열심히 배워 가족 캠프에서 연주하고 싶어 음악활동은 기타를, 체육활동은 반 대항전에 선수로 뛸 생각에 축구를 선택하였습니다. 자유는 진로체험을 선택할 때도 코딩체험, 기계, 로봇 관련 체험 등을 신청해서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합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자유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활동 결과를 문장으로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자유학기를 이수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유학기 활동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에 참여도, 활동내용, 태도 등을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김자유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예시

학년	학기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1	주제선택 활동	68	(생활 속 통계)(34시간) '성적과 행복지수'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에서 설문을 제작하고 수집하여, 그래프와 도표로 표현하고, 자료의 해석 및 분포의 특징을 잘 설명함. 생활 속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해결 활동을 좋아함. (스마트폰 앱 제작)(34시간) 엔트리를 활용한 앱 제작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사고력과 끈기가 우수함.

[수업사례] '내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계수업'

- ○○ 중학교의 수학과 수업

○○ 중학교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주변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수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 수업 진행방법 >

수업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꼭 배워야 할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모둠별 'Real Problem' 정하기	프로젝트 계획하기	모둠별 프로젝트 진행하기	프로젝트 결과 공유하기
주변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발견하며 사고를 확장	선생님과 친구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며 문제의 본질에 접근	모둠별로 선정한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	학생들은 통계 단원의 내용을 배우면서 모둠별로 자료 조사, 통계적 분석,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모둠별로 통계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통해 공유

학생들은 수학 수업을 통해 교내 신발장 문제(냄새, 소리 등)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업이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냄새와 소음이 심한 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라!

- ☑ 교내 신발장의 악취, 여닫는 소리 등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소음을 직접 측정하며 통계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재료 선정과 구입, 설치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신발장의 문을 제거하고 방수천을 직접 재단하여 부착하는 해결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신발장의 문제를 해결해내었습니다.



그 외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라!

- ☑ A모둠 : 사물함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여 사물함 위치 이동
- ☑ B모둠 : 음수대의 수압과 온도를 측정해서 음수대 교체 제안
- ☑ C모둠 : 탈의실의 문제를 파악한 후 커튼에 자석을 붙여 직접 해결

친구들과 힘을 합쳐 스스로 학교(사회)를 바꿔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는 교과 지식을 넘어선 또 다른 배움입니다. 이렇게 배운 통계 내용은 절대 잊을 수 없겠지요? 수학 실력도 up!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 21세기 핵심 역량도 up!

